불교리더스포럼 재구성…5기 임원 위촉

조계종, 4월 28일 위촉식

상임대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본사 중심 전국 조직으로 확대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은 4월 28일 불교리더스포럼 5기 임원단 위촉식을 진행했다.

불교적 신념을 토대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들이 불교리더스포럼 5기 임원단을 구성하고 새롭게 출범했다. 특히 지도법사단과 고문단, 지역교구 포럼을 신설하는 등 조직구조를 정비하고, 서울 뿐 아니라 전국 각지로 활동범위를 대폭 넓힌다는 방침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4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리더스포럼 5기 임원단 위촉식을 진행했다. 상임대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상임부대표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을 중심으로 공동대표 15명과 감사 2명이 이날 위촉장을 수여하고 5기 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원행 스님은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불교를 위해 일해 오신 분들을 불교리더스포럼 대표로 모시게 되어 반갑고 감사하다"며 "불교 발전과 수행을 위해 각 분야에서 원력을 갖고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흥 상임대표에게도 "중앙신도회장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만큼 불교를 중심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공동대표는 이귀남 前 법무부장관(법조),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국회), 육현표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재계), 김민배 TV조선 사장(언론), 차승재 한국영화제작가협회장(문화예술), 최영현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보건의료), 윤종원 IBK기업은행장(금융), 한자경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여성), 손창동 감사원 감사위원(공공), 이인정 아시아산악연맹회장(체육), 최현국 공군예비역 중장(군), 고유환 통일연구원장(남북), 정연만 前 환경부 차관(환경), 윤성이 동국대 총장(교육)이 위촉됐으며, 선상신 아시아투데이 사장과 김정만 법무법인 정행 대표변호사가 감사로 선임됐다.

5기 불교리더스포럼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교구포럼 신설을 통한 활동 범위의 확대다. 24개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지역포럼을 구성해 전국의 분야별 불교지도자를 발굴, 조직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포럼에 참여한 인원이 서울을 중심으로 200여 명 가량이었던 데 반해, 5기 불교리더스포럼은 서울 500명, 지역 500명 등 전국 구성원 1000명을 목표로 확대운영될 예정이다. 15개 직능분야별 25~28명이 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교구포럼은 교구별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전국 교구장 스님과 총무원장 특보단장 스님 등 지도법사단을 신설해 보다 긴밀한 교류와 소통도 추진한다. 또 1~4기 임원들로 구성된 고문단도 신설해 지속적인 인연을 통해 연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흥 상임대표는 "15개 분과별 공동대표들을 중심으로 한 가운데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해 운영위원단과 집행위원단도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전체모임 뿐 아니라 분야별 모임을 활성화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가운데 종단과 교구 등 불교계 현안을 잘 살피고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행 스님은 이날 김동건 전 상임대표와 박기련 前 사무총장에게 그동안 불교포럼을 위해 힘쓴 데 대한 공로패를 수여했다.

재한외국인 스님들도 "미얀마에 평화를"

다문화불교연합회, 4월 25일 스리랑카 사찰 마하위하라서 '미얀마 평화 기도법회' 봉행


한국다문화불교연합회 스님들이 미얀마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기도를 올리고 있다.

"따타-가땅 데-와마눗사뿌-지땅, 상강 나맛사-마 수왓티 호-뚜." (완전하신 상가에 예경 올리니, 이로써 모두에게 축복이 있기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스님들이 테라와다 전통의식을 통해, 고통받는 미얀마에 평화가 깃들기를 발원했다. 특히 군부 쿠데타 이후 악화일로를 걷는 미얀마 현지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고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발원이 이뤄지길 기도했다.

재한외국인스님들의 모임인 한국다문화불교연합회(회장 담마끼띠, 이하 다불연)가 4월 25일 아산 스리랑카사찰 마하위하라에서 '미얀마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봉행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마하위하라 주지 담마끼띠 스님과 태국 붓다라마사원 주지 지라삭 스님, 네팔 텍첸사 주지 쿤상 스님, 베트남 원오사 주지 팃뜨엉탄 스님, 미얀마전법선원 우웃따라 스님을 비롯한 각국 신도들이 참석했다.

스님과 신도들은 법회에 앞서 헌화와 촛불 공양을 진행했다. 이번 사태로 희생된 모든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의미다.

다불연 회장 담마끼띠 스님은 "미얀마는 지금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희생된 많은 존재들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한다"며 "지금 이순간에도 힘겹게 군부와 싸우고 있는 시민들이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되찾고 평화롭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기도했다. 이어 스님은 "다불연이 마련한 이번 평화기도회가 미얀마 평화의 길을 조금이나마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기도회의 취지를 전했다.

국가와 민족은 달랐지만 미얀마의 평화를 기도하는 마음은 하나로 맞닿았다. 스님들은 팔리어로 테라와다 전통 방식으로 법회를 이어가며 한마음으로 미얀마를 위해 기도했다. 기도회는 테라와다 전통 평화의식의 일환으로 오계와 삼보 예경, 〈자애경〉 독송으로 시작됐으며, 미얀마 사태로 희생당한 영가들을 위한 기도문을 낭독했다.

각 국가별 전통에 따른 의식도 이어졌다. 베트남 원오사 주지 팃뜨엉탄 스님이 집전한 가운데 베트남 불자들은 〈삼부경〉와 〈자비경〉 낭독, 관세음보살 기도로 세계 모든 중생의 공존과 평화를 발원했다. 팃뜨엉탄 스님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미얀마 평화를 기도하는 동시에, 인연을 맺은 모든 이들의 평안을 발원하는 의미를 담았다"며 "미얀마에서 지속되고 있는 고통이 어서 끝나길 발원한다"고 전했다.

미얀마전법사원 주지 우웃따라 스님은 "외신을 통해 미얀마 본국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양곤 등 대도시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어 시민들이 심각한 공포와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우리 법당을 찾는 유학생과 노동자들 역시 가족에 대한 걱정과 나라에 대한 걱정으로 고통받고 있다. 하루빨리 사태가 종식되고 평화가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송지희 기자

'채식'으로 부처님 가르침 실천

불교환경연대, 캠페인 선포
전국 사찰 2300여 곳 대상



부처님오신날 캠페인 포스터

기후위기 극복위한 노력불교환경연대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국 2300여개 사찰을 대상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부처님오신날 공동캠페인'을 제안했다. 기후위기로 각종 부작용에 직면한 지구와 지구상의 뭇생명들을 위해,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으로 돌아가 생명 존중을 통한 실천행에 나서자는 취지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는 4월 28일 서울 불교환경연대 그린담마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생명을 존중하는 부처님오신날 공동캠페인' 활동계획을 공개했다. 캠페인은 불교기후행동, 녹색사찰과 공동으로 진행되며 조계종 사회부가 후원하는 가운데, 5월 12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사찰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행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를 위해 불교환경연대는 전국 사찰 2200곳과 21개 녹색사찰, 61개 불교기후행동 참여사찰과 단체에 안내 공문과 포스터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캠페인을 통한 실천방침은 △채식하기 △빈그릇 운동 △일회용품과 비닐·플라스틱 줄이기 세 가지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찰은 구체적인 실천내용과 취지를 담은 포스터를 경내에 부착하고, 실천지침을 지키기 위해 모든 신도들이 사전에 텀블러와 개인용기를 지참하도록 공지하면 된다. 또 법문 때 육식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캠페인의 취지와 참여방법을 알리고 실천상황을 사찰 및 단체별로 공유하거나 실천노트 등으로 구체화한다.

개인 동참도 가능하다. 음력 4월 초하루부터 부처님오신날까지 3가지 실천방침을 준수하고 이 과정을 SNS 등에 게재하면 된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불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부처님오신날 생명살림 실천약속'을 담은 서약운동도 전개한다. 서약서에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산업사회가 낳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고 우리의 생활방식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내용의 캠페인 취지가 담겼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은 "기후변화 문제가 다른 어떤 사안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시점"이라며 "종교계가 나선다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부처님오신날 불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주영 사무처장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채식과 빈그릇 운동, 일회용 물품 사용을 지양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우리사회에 불교적인 실천행을 확산시키고 불자 개개인이 '불자다움'을 되새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불교환경연대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20주년 도서 발간과 새로운 비전 구성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10월 21일 2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6월 11일 토론회 등을 통해 불교환경연대의 지난 발자취를 되짚고 이를 토대로 향후 20년을 담보할 비전을 설정해 나갈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본사지위 회복한 선암사, 재적승 모집

조계종, 재적승 접수 시작

조계종 본사지위를 회복한 제20교구 본사 선암사가 교구 재적승을 모집한다.

조계종은 4월 20일 홈페이지에 선암사 재적승 신청안내를 공고하고 선암사를 재적본사로 취적하고자 하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접수를 시작했다.

이는 지난 220차 중앙종회임시회가 제정·공포한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정상화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선암사의 교구 지위 회복에 이은 후속조치다. 승려법은 1명당 1교구본사 재적을 원칙으로 하지만, 선암사의 경우 특별법에 의거해 현재 재적교구 외에 선암사를 중복 취적할 수 있다. 또 선암사 교구 재적승이 되더라도 기존 교구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받지 않는다.

신청을 원하는 스님은 재적승 신청서와 수행이력서를 첨부해 선암사(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번지 조계종 선암가)로 접수하면 된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직접 방문보다 우편 접수를 권고하고 있으며, 신청 결과는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061)725-5108

노덕현 기자

